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5, 입양, 파트 2, 성화, 파트 1, 역사적 정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입양, 2부, 그리고 성화, 1부, 역사적 정찰입니다.

우리는 입양으로 알려진 구원의 적용의 특정 측면으로 구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죄와 자아에 대한 노예 상태, 입양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아들 또는 딸이 됩니다. 그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 또는 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은,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입양과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속죄의 그림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로 구속입니다. 입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입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입양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죄와 자아의 노예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7~9는 분명히 인용합니다. 진실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속하거나 하나님께 그의 생명의 값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대속은 값비싸고 결코 충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면서 구덩이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용문 닫기.

그래서 시편 49:7-9이고,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찾은 이유입니다. 인용하자면,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7. 사실, 바울은

우리의 최종 입양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23. 제 노트가 틀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첫 열매로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입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8:23.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증거하듯이요 . 갈라디아서 3:26은 "믿음으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거듭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입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13에서 선언하듯이, 요한일서 1장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입양에 대해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입양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믿음의 선물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입양에 이를 수 있도록 믿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 15절에서, 여러분은 입양의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

아바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람어 단어로, 아빠나 파파와 비슷합니다. 정당화, 다다를 의미하지 않고, 아기말도 아닙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를 향한 아이의 말입니다.

정당화와 입양은 모두 법정에서 찍은 구원의 그림입니다. 정당화는 형사 부문에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 법원에 있습니다.

둘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시므로써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반면, 입양은 아버지가 믿는 자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의 가족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15, 여러분은 입양의 영을 받으셨고,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등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15는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의미는 그 단어들을 소리 내어 말하고 의미하며 성령과 별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를 입양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처음 두 인격의 이름은 입양 교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입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은,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모호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입양 교리를 우리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는 입양의 영이십니다(로마서 8:15). 그는 그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의 것은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6. 성령은 그의 아들의 영입니다. 즉, 성령은 아버지의 아들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전체는 그 구절에서 그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의 이름을 바꾸어 입양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입양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이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적용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입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인용문, 갈라디아서 3:26 ,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이 믿는 갈라디아인들이 입양되는 수단이며, 입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입양,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회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축복의 큰 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더 큰 원 안에 있습니다.

입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대부분의 학자와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을 신앙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는 이에 동의하며 설명하고, 인용합니다. 독립적으로 취하면, 이 두 구절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실제로 그의 신학 전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으로 확립되고, 그 연합은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보장됩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6.

입양과 축복은 다양합니다. 그 중 다섯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놀라운 축복은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으며 그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갈라디아서 4:4, 5.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입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4, 5.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또는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 자녀로 그의 가족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깊은 소속감을 충족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입양이라는 주제로 여러 리트리트에서 연설했고, PNR 출판사에서 Adopted by Go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리트리트에서 가르치는 다른 두 목사나 교수가 저와 같은 이유로 입양 교리에 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성만을 위한 리트리트에서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양에 대한 간단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형식이겠지만, 입양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구절인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1~7. 로마서 8장, 14장~19장,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식탁을 돌며 나누는 시간에, 남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마도 형제들이 있고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그 부족함을 느끼며 울었고, 하늘 아버지 의 사랑의 선함과 은혜에 압도당하여 기쁨에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아버지의 사랑의 부족함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 자녀로 그의 가족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깊은 소속감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은 우리가 그를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8:15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입양의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입양의 영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영은 또한 두 번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16에서 인용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16에서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유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확신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5를 인용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확신은 세 가지에 기초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주관적이고 성경적이며 훌륭하고 참되지만, 첫 번째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입양의 경우,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느낄 수 없고,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고 낙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히 합니다. 셋째, 입양의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닮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 유사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며, 그의 욕망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44와 비교해보세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속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합니다. 로마서 8: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로마서 8:14 . 성경은 신성한 인도를 가르치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인 신성한 인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자들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사병이 상사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가족적으로 닮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영의 인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하며,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닮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절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으로. 넷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한 사랑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7, 그리고 9장, 10장.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는 모든 자녀를 벌하십니다. 받는 모든 아들은 징계로 고통을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잠깐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7, 9, 10. 입양의 다섯 번째 축복.

더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를 골랐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입양은 이미 있고 아직 아닙니다. 요한일서 3: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2. 바울은 입양이 현재이자 미래의 현실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7.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7. 우리는 이제 아들 또는 딸이며, 또한 미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17.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입양을 갈망합니다. 인용문: 우리 자신은 첫 열매로서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몸의 입양과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합니다.

구원의 적용에 대한 다음 측면은 성화입니다. 간략한 성경 요약 후, 루터교, 웨슬리안, 케스웁, 오순절, 개혁파의 기독교 생활 관점을 살펴보는 역사적 정찰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점을 평가한 후, 체계적인 성화 공식화를 고려할 것입니다.

성화와 삼위일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의 성화. 우리의 역할에서의 성화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화, 성경적 요약. 하나님은 초월성과 성격에서 거룩하십니다.

그는 어떤 죄나 결함으로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고 구별됩니다. 성화가 가르치는 대로, 거룩함은 무언가가 하나님께 봉헌되거나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에서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거나 거룩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성인이 됩니다.

동시에, 신자들은 신자로서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더 동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자들이 거룩함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존재가 될 때인 마지막 날에 완성되고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역사적 정찰은 우리를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신앙의 적들 앞에서 신앙을 옹호하는 변증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견해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로 미리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밉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견해는 모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제가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글에서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요약하고, 그들과 상호 작용하고, 좋은 곡식을 취하고 껍질을 버릴 것입니다.

제 태도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교화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정찰. 1987년 기독교 영성에 전념한 복음주의 신학 협회 연례 회의를 기억합니다.

저는 다양한 전통의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생활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의 기대에 맞춰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공통점을 강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독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생활에 대한 매우 다른 다섯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서, 만약 어떤 불쌍한 사람이 거리에서 걸어와서 이 모임에 온다면, 저는 새로운 신자, 새로운 인상에 남는 신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너무 과장되어 있고 다른 견해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그때까지 2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제 체계에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저는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기 전에,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아래의 다섯 가지 견해는 모두 성경의 무오성, 삼위일체, 죄의 실체, 성육신,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인한 구원 등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는 아래에서 강조점에서 다릅니다. 저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성화를 요약하겠습니다. 루터교, 웨슬리안, 케스워, 오순절, 개혁.

청취자와 시청자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Zondervan.

기독교 영성, 성화에 대한 5가지 견해. InterVarsity, 1989. Kelly Kapik, 편집자.

성화, 신학과 실천에 대한 탐구. InterVarsity, 2014. 루터교.

루터교의 기독교 생활 관점은 정당화의 우선성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성화와의 관계, 율법-복음 변증법, 그리고 루터의 기독교인은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격언. 한 번 더.

루터교의 기독교 생활 관점은 정당화가 항상 그들에게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정당화와 성화의 관계, 루터교의 율법-복음 대조 변증법, 그리고 루터의 기독교인은 항상 의롭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명제. Simul justus et peccator .

프랜시스 피퍼의 표준 기독교 교의학은 루터교 신학에서 정당화 조항이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중심적인 주요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 가르침의 정점입니다. 프랜시스 피퍼, *기독교 교의학*, 4권, 2권, 512~513.

이 말에서 루터의 전통은 정당화에 관해 쓴 창시자에게 충실합니다. 인용문, 이 기사가 유지되면 교회가 유지됩니다. 이 기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마틴 루터, What Luther Says, an anthology, three volumes, volume 2, 7, page 704, note 5. 정당화는 루터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때때로 정당화가 성화의 자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지만 루터교는 정당화의 우선권을 매우 보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Pieper는 정당화와 성화 사이의 관계, 즉 연결을 요약하는 두 가지 원리를 확언합니다.

첫째, 칭의 또는 믿음과 성화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칭의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경우에, 성화도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이 분리할 수 없는 연결에서, 수레를 말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성화는 칭의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칭의의 결과이자 효과로서 적절한 자리에 남겨져야 합니다. Pieper, *Christian Dogmatics*, 7쪽. 이 문제가 그의 나머지 교의학이 7쪽에 있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옳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루터교의 해석의 핵심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변증법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발견하면서 율법-복음의 구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에 비추어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요구, 의무, 위협, 경고, 판단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들이 충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10. 로마서 6:23. 심지어 인용하자면,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럽혀진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6. 인간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로 더럽혀졌으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루터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율법의 주요 기능입니다. 저는 덧붙여 루터, 칼빈이 율법의 이러한 정죄적 사용을 인정했지만, 그는 십계명의 원래 맥락을 지적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중에 초기 계명 가운데서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의 친절을 베푸신다.

칼빈은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용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뒷문으로 율법을 들여와 어떻게든 자유로운 칭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요구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복음은 심지어 불쌍한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일에서, 특히 그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승리에서 우리의 대속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성례전, 그리고 말씀의 전파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확신시키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로마서 1:16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율법-복음의 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매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반을 둔 교회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는 죄의 죄악성을 약화시키고 위선자를 만들거나, 추종자들을 거짓된 교만으로 채우는 공로 신학으로 이끕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simul justus et peccator*,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면서도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유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칭의를 통해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simul righteous justus* 이지만, 항상 모든 면에서 자신 안에서는 죄인 *peccator*입니다. ETS 회의에서 연설한 루터교 신학자 데이비드 스케어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보하도록 의도하셨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전문 루터교 신학자 데이비드 스케어의 말을 인용합니다. 기독교 생활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오직 *simul justus et peccator* 입니다. 와우.

같은 형제이자 그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며 많은 책을 쓴 매우 지적인 교수이며, 루터의 기독교 생활에 대한 격언에서 동시에 *simul*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루터의 개념, 인용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인용합니다. 데이비드 스케어의 기사,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1985, 181~195페이지에 실린 루터교 신학에서의 성화. 인용, 루터의 *simul justus et peccator* 개념은 정당화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한 루터교의 이해에 근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정당화되고, 같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 이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라틴어 단어 *simul*이 동시에 존재하며, 마치 시간적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르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교 신학에서 정당화는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한다.

성화는 칭의와 같은 현실을 묘사하지만 칭의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사회에 맺는 관계를 묘사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가지 별개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기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만 영접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현실은 결코 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행합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전도사이자 제자도 그룹의 조직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로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은 절충주의적이었고 그리스 교부, 중세의 영적 작가, 경건주의자, 개혁가, 청교도의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의 성화에 대한 견해도 단색적이지 않았습니니다. 웨슬리는 기본적으로 정당화에 대한 개혁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를 대속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보편적이고 선행적인 은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성화는 회심에서 시작되며 점진적이며, 하나님의 성화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웨슬리는 신자의 성숙에 대한 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완전한 성화, 거룩함 또는 두 번째 축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완전한 성화, 거룩함 또는 두 번째 축복.

웨슬리는 따라서 성화가 점진적이며, 회심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서 즉각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화에는 영적 방법의 사용이 포함되었는데,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이로 인해 감리교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책인 그리스도를 본떠서 (*The Imitation of Christ*) 는 신앙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체계적인 자기 훈련을 사용하는 것이 타고난 죄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됨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 켐피스, 제러미 테일러 주교, 그리고 웨슬리의 동시대인 윌리엄 로우의 글에서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표를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39절. 웨슬리는 또한 그리스 교부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중세의 영적 작가들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스퍼드와 조지아에서의 엄격한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한 후, 조지아에서의 그의 사역, 웨슬리의 회심은 그것을 달성하려는 그의 기대를 새롭게 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완전한 성화는 죽음에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리의 이름으로 요약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구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가 존 웨슬리의 작품집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11권, 366-466페이지, 100페이지에서 썼듯이, 웨슬리는 이것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맥락에서, 웨슬리는 요한 1서 3:9,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킹 제임스 버전을 해석할 때, 죄를 알려진 법을 고의로 범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비자발적인 범법도 인정하고, 우리는 온 삶을 고백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범법, 즉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자발적인 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만 비자발적인 범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웨슬리는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을 구원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대한 짧은 정의를 내리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마음과 삶 속에서 홀로 군림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완전함의 전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심 후에 성화를 얻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자들이 그것을 얻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마음을 그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분께 기쁘게 순종합니다. 웨슬리의 장기적인 창조적인 신학적 기여에 대해 토마스 노블은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기독교 생활 교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교리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제가 설명하려고 시도해 온 웨슬리의 완전 성화 교리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적 상속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적 완전성에 대한 그의 교리를 물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대다수는 그와 결별한 반면, 웨슬리는 점진적 성화와 즉각적인 완전 성화를 결합했습니다. 저는 지금 케네스 그라이더의 웨슬리안 성결 신학 38페이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보다 젊은 동시대인 아담 클라크는 이 문제를 웨슬리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인용문에서 인용한 대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정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용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점진적 사면이나 연속적 정화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용문 닫기. 케네스 그라이더는 점진적 성화라는 이 문제에서 거룩함 운동이 웨슬리의 견해가 아닌 클라크의 견해를 성경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기독교 생활에서 성화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요약은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입양, 2부, 그리고 성화, 1부, 역사적 정찰입니다.